



The no-melt grease that lubricates under severe temperatures
as well as normal operating temperatures.
(정상가동온도뿐만 아니라 초고온에서도 뛰어난 윤활성을 발휘하는
무적점 그리이스입니다.)

Virtually an all-purpose grease, Omega 71 reduces wear and friction on bearings and shafts even above the operating limits of petroleum oils.

(오메가 71 은 광유의 내열한계를 뛰어넘는 고온부에서도 베어링이나 샤프트의 마찰과 마모를 줄여주는 다목적 그리이스입니다)



- Will not run or drip at any temperature.
(어떠한 온도조건하에서도 녹거나 적하지 않는다.)
- Is color-Coded to prevent misapplication.(칼라코팅 - 오용을 방지한다.)
- Withstands severe temperatures. (초고온에서도 견딘다.)
- Forms its own seal to keep out contaminants and water.
(보호막을 형성하여 이물질이나 수분의 진입을 막는다.)
- Has outstanding stay-put quality-long lasting properties and eliminates the need for frequent lubrication.
(점착력이 뛰어나 장기간 보전이 가능하며 급지의 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다.)
- Prevents breakdowns due to faulty lubrication. (윤활불량에 의한 기계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 Has Been Alloyed with Megalite, the exclusive omega wear resistant formula.
(오메가가 독자개발한 내마모방지제인 메가라이트가 함유되어 있다.)

USE OMEGA 71 WHEREVER SMOOTH-RUNNING EQUIPMENT IS ESSENTIAL.

(무리없는 기계의 운영을 위해서 오메가 71 은 필수적이다.)

OMEGA 71 is a new type of lubricant that stays where you put it, even in conditions of high heat. It has the following features:

(오메가 71 은 고온에서도 주입한 부위에 남아있는 새로운 형태의 윤활유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NO MELT Quality: (무적점)

Ordinary greases can be compared to a sponge saturated with oil. The sponge consists of millions and millions of fibrils- tiny threadlike particles which hold the oil in place. The fibrils are made from animal organic products which become soft when subjected to heat. The fibrils melt under heat and allow the oil to flow off leaving the working surface without protection. **Omega 71** eliminates this costly problem. The thickeners in this unique product contain a scientifically designed lattice-work of chemically modified pyrethrums clays which are finer than the finest face powder. These fibers have no melting point-as a result there is virtually no softening of the lubricant when exposed to high heat. As temperature becomes very high, the outside layers tend to volatilize instead of melt. The thickeners hold inner layers intact, without loss of lubricating qualities. Under continuous elevated temperature service, periodic flushing with Omega 71 keeps bearings in perfect condition. The oil used in **Omega 71** is paraffinic oil that is high in viscosity to resist the high heats encountered. (일반 그리이스는 오일이 스며든 스펀지에 비유될 수 있다. 스펀지는 수백만의 미세섬유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느다란 실같은 입자가 오일을 흡수하고 있다. 이 섬유질은 동물성 유기물로서 열을 받으면 물러지는 특성이 있다. 이 섬유질이 열을 받아 녹아버리면 오일성분이 기계표면에 흘러 떨어져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독특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증주제는 화장품 파우더보다 더 미세한 피리스티움 클레이를 화학적으로 개량한 것으로 기하학적인 격자모양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섬유질에는 적점이 없다. 따라서 고온에 노출되더라도 녹지 않는다. 매우 높은 온도가 되면 외층은 녹지않고 기화하게 된다. 또 증주제는 내층을 그 자체상태로 보존하여 윤활특성을 잃지 않도록 해준다.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조건하에서 오메가 71 을 계속해서 보충하여 주입하면 베어링은 완전한 상태에서 회전한다. 오메가 71 에 사용된 오일은 파라핀계 오일로서 점도가 높아서 내열성도 뛰어나다.)

VERSATILITY: (범용성)

Omega 71 is a versatile lubricant which works exceedingly well in practically all types of standard equipment. It is ideal for water pumps and babbit bearings. It is excellent for kiln car bearings: autoclaves and other bearings that work in close proximity to high heat sources. Nearly all applications can be satisfactorily performed with this one product. This reduces any lubricant inventory and cuts the cost of warehousing. (오메가 71 은 모든 형태의 표준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윤활유이다. 워터펌프 배빗베어링에 최적이며 고온하에서 사용되는 킬른대차, 오토클래브, 그 외의 베어링에도 적합하다. 오메가 71, 이 한가지 제품으로 거의 모든 용도에 만족스럽게 적용할 수 있다. 때문에 쓸데없는 윤활재고량이나 창고비용을 줄여준다.)

MEGALITE CONTENT: (메가라이트 함유)

Omega 71 contains Megalite which adds to the protection of the bearings from high temperatures. This incomparable addition provides a great insurance against bearing failure and breakdowns. Megalite prevents metal to metal contact even in conditions of extreme shock loading. (오메가 71 은 메가라이트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고온하에서 베어링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 뛰어난 첨가제는 베어링의 손상이나 고장을 막는데 크게 기여한다. 또 이 메가라이트는 큰 충격하중에 의해 일어나는 금속간 접촉을 막을 수 있다.)

CUTS GREASING TIME: (주유시간의 절감)

Precious manhours should be spent operating equipment instead of constantly lubricating it. When Omega 71 is used, the equipment stays sound and operates at peak efficiency for much longer periods because the lubricant stays in and functions constantly. (쓸데없는 주유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귀중한 노동력을 기계조작에 투자할 수 있다. 오메가 71 을 사용하면 보다 장기간 기계를 안전하게 해주고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주입부위에 점착되어 계속적으로 그 특성을 발휘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UNIQUE PRODUCT: (제품의 독특성)

Omega 71 is a one of a kind product and the result of twelve years research by Omega scientists. It does not contain soaps as ordinary greases do. Omega 71 has been especially formulated to eliminate the drop point so that it will not liquefy and hence will not flow from the surface being lubricated. The unique ingredients employed in the manufacture of Omega 71 enable it to operate at constant temperatures of up to 400°F (204°C) and intermittently to 500 °F (260°C). Its viscosity rating of NLGI No.2 allows it to be readily applied. (오메가 71 은 오메가 연구진에 의해 12 년의 연구성과로서 개발된 것으로 다른 일반 그리이스처럼 비누분은 함유되어 있지 않다. 오메가 71 은 적점이 없어 고온하에서도 액체로 되어 윤활부위로부터 흘러 떨어지지 않는다. 오메가 71 에 함유된 독특한 성분에 의해 연속적으로 232°C, 또 간헐적으로 260°C 까지 견딜 수 있다. NLGI 주도는 2 호이므로 급지도 간단하다).